

제판업계 천하통일 목표 인재육성 통해 선의 경쟁



이 승 배

(주)이콜 T&R 대표이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승배 (주)이콜 T&R 대표이사는 30여년간 연포장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제판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난 2월 인천에 공장을 개설했다.

일반 인쇄의 제판사업과 미국에 연포장 가공제품의 동판을 책임지고 국내업체들의 동판관리와 데이터를 관리하던 이승배 사장은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일도 늦어지고 비용도 맞지 않아 직거래하는게 좋겠다고 판단, 동판업계에 뛰어들었다.

많은 동판업체들과 연포장 가공업체들을 인맥으로 갖고 있다는 이승배 이콜 사장이 동판업계에 뛰어 든 것은 을지로에서 상업인쇄 제판을 했지만 최근 인쇄업계의 디지털화로 갈수록 인쇄업계의 영역이 좁아져 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모색하다 그동안 관여해왔던 연포장 제판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우직하게 한가지만을 해오던 이 사장은 지난 2월 헤리오 1대를 갖추고 제판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동안 해오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작한다는 부담감이 앞선다.

지금까지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해 왔다는 이 사장은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기

직접 디자인 제품 진열에 희열 성실과 정도로 업계 진입할 것

존 제품을 보완하는 일에 몰두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보다 인쇄 품질이 앞선 나라들의 샘플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열심이다.

이 사장은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을 통해 제 판업계의 천하통일을 목표로 뛰겠습니다.”라며 웅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미 유수의 연포장 가공업체와 거래를 해왔고 또 품질과 납기에는 자신이 있다는 이 사장은 제 판업계가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성실하게 정도를 가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의 성실함을 알려주는 것일까? 지난해 우수 납세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직하게 팔고 신고하다보니 이런 영광도 오게 되는 것 같다”는 이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연포장제품을 책임맡아 수출하게 되어 연포장과 연을 맺었다는 이 사장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판, 인쇄된 제품이 상품 진열대에 있을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디자인 작업을 시작으로 인쇄되어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성실함으로 대처해 한번 거래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고 다른 거래처를 연결시켜 주는 등 영업활동을 적게 했어도 물량이 늘어났다는 이 사장은 지금까지 모습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그에게 또다른 강점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여러분야를 섭렵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자신과 문의하는데가 많아지고 이를 해결해 주다 보니 고정 우량 거래처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기술적 요인은 자신의 손재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사장은 수작업시절이 적성에 맞을 정도로 손으로 하는 꼼꼼함이 성격에도 맞고 자신이 내세울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해내고야 만다는 이승배 사장.

헤리오 1대, 오는 5월 1대를 추가 도입해 규모를 넓혀갈 예정이라는 그의 목표대로 제판업계를 천하통일할 그날을 주목해 볼 일이다. ☞